

중국내 수입차 수요 폭발적으로 증가

aT청뚜지사

시장조사전문기관 Mintel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 세계 전통 차의 판매량은 22%나 하락하였으며 16세에서 34세사이의 젊은 층은 차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세계 최대 차의 생산국인 중국 차류 제품 생산 업체들의 판매 부진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반면 소비자들은 좋은 차를 찾기 힘들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전통 차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으며 중국 젊은이들은 중국산 녹차 한 잔을 우려 마시는 것보다 스타벅스 Teavana 등을 더 선호하고 있음.

지난 1년 간 중국은 영국으로부터 많은 홍차를 수입하였는데 영국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2년 전에 비해 2016년 1-5월 5개월간 중국 본토에 수출된 영국 차 물량이 두 배 이상 늘음. 이 수치는 빠른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온라인에서도 영국산 수입차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일부 브랜드는 티몰(天貓·Tmall)에 입점뿐 만아니라 프리미엄 매장과 고급 레스토랑 등에도 입점을 확대하고 있음

〈2011-2014년 중국 차류 전자상거래 B2C시장 교역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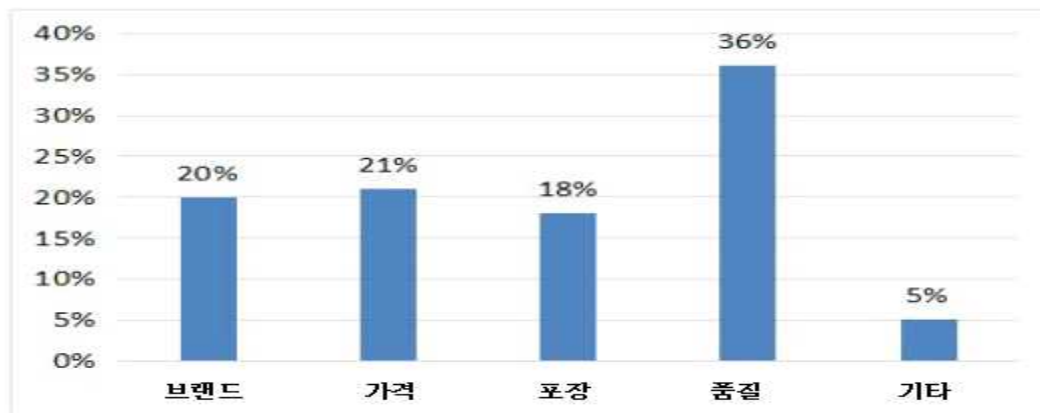


출처 : www.sohu.com

영국 차는 차에 우유, 설탕 및 각종 과일을 넣어 마시는데 이러한 시음방식은 중국내 여러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등장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크게 확산하고 있음.

영국산 이외 인도산 차도 2014 년부터 중국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음. 예전에는 영국인들이 중국에서 차잎을 인도로 가져갔지만 지금은 영국과 인도 상인들이 더 많은 홍차를 중국으로 가져오고 있음.

<중국 소비자 차류 구입 시 선택 요소 비교>



* 출처 : www.51diaocha.com

시사점 : 중국에서는 젊은 중산층이 수입 차류 제품의 주요 소비층으로 한국 차류 업체들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제품 개발, 온라인 채널을 통한 시장공략이 필요함.

자료원 : 중경신보(2017.05.07.), www.sohu.com, aT청뚜지사